



조간 제7940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음력8월22일)



코스모스 향기 가득한 '나주 영산강정원' 휴일을 맞아 12일 오후 나주시 영산강정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찾은 윤병대 나주시장과 관람객들이 활짝핀 코스모스 꽃길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AI는 광주”...‘글로벌 석학들’ 힘 보탠다

15~16일 ‘AICON 광주’ 개최...국내외 전문가 총집결
기술 공유·기업 MOU...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AI 분야의 세계 석학·혁신기업이 광주로 총집결해 AI산업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실현 방안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인공지능 전환(AIX) 실증밸리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오는 15~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AICON 광주 2025’는 산업·도시·시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전환(AIX)의 물결이 광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의 ‘The AIX 웨이브, 광주’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광주의 인공지능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강기정 시장 환영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개회사, AI 작곡과 피아노 협연 공연 등이 이어진다.

광주시와 인공지능기업 10개사는 15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컨퍼런스의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은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국내 AI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최초 정립한 세계적 명문대학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유영진 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에 대해 기조강연한다.

특별강연에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명문 대학인 북경우전대학교 차오 위안위안 교수, 레오 지앙 싱가포르 그라운드(Grond) 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중국·싱가포르의 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특별좌담회에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X 실증밸리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3년 11월 국가AI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AI데이터센터는 노트북 약 50만대의 업무를 1초에 할 수 있는 88.5PF, 저장 용량은 1TB 하드디스크 10만개에 해당하는 107PB를 갖추고 있다.

시는 AI 1단계 사업에 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AI 특화단지 2단계 사업인 ‘AI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면에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 새롭게 바뀝니다

광남일보가 13일부터 지면을 20면으로 증면합니다. 시·도민과 독자 여러분께 보다 풍성하고 유익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한층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제2의 창간’이라는 각오로 광주·전남의 오늘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담아내며, 지역 경제와 독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면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경제면을 대폭 확대 합니다

경제면은 기존 1~2면에서 5면으로 확대해 3면부터 전진 배치합니다. 지역 기업과 산업의 흐름, 생활경제, 소상공인 현장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며 지역경제의 맥을 짚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들의 이야기도 적극 소개합니다. 특히 주요 현안을 다루는 기획특집을 정기적으로 편성해 지역산업의 방향성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광남일보는 독자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요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광주 AI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군·민간공방 통합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을 모색합니다.

또한 뉴스뿐 아니라 스포츠, 문화, 축제, 주말 기획 등 다채로운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어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신문으로 편진을 강화합니다. ‘읽는 신문’을 넘어 ‘읽고 보는 신문’으로 진화에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활성화에 힘을 보탬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호남정문지 광남일보는 해피니스CC와 함께 KLPGA 정규투어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을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나주시 해피니스CC(휴먼·해피코스)에서 열리며, 홍정민·유현조·이예원·노승하·방신실·박현정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초대 챔피언 자리를 놓고 열전을 펼칩니다. SBS골프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전남의 맛과 멋, 그리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광남일보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광남일보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열고 독자의 신뢰에 보답하는 품격 있는 언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광주·전남 주요 기관 국정감사 돌입

호남선 열차 편성 차별·여객기 사고 등 쟁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법원·검찰, 전남대와 교육청 등 광주·전남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광주고검·지법·가정법원을, 오후에는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대상

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 공정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는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ㄹSR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호남선 열차 편성 차별 논란과 철도 통합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인천에서 한국공항공사 국감이 열리며, 증인으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안전관리 부실 및 대응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전북대에서 광주·전남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원 확충과 지역 의대 정원, 전남대병원 공공성 강

화 등 지역 교육·의료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앞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는 ‘순천시 애니메이션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전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2면에 계속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시, 자동차부품 ‘외국인 취업비자’ 도입

법무부, 금형·성형·용접분야 E7-3 비자 2년간 시범사업

광주시는 금형·성형·용접 등 자동차부품제조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비자(E7-3)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올해는 광주에 40명이 배정되고, 내년도 배정 규모는 올해 성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7-3 비자는 국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 취업비자로, 5년 이상 근무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며, 광주시는 지난 9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6개사 122명의 인력 신청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외국인 인력의 기량검증을 실시한 뒤, 수요기업에 총 40명을 배치해 올해 안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 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

